

제 114 호

주의 봉헌 축일

1975. 2. 2.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 감 론 □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행복

권영균 신부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를 우주시대, 혹은 원자시대라고 하지만 오늘날 세계인류는 문자 그대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편은 더욱 심합니다. 38선은 그대로 남아있고, 30년간이나 외국의 원조를 받아왔지만 빈곤은 여전하고, 부정 부패 부조리도 그냥 있습니다. 물가는 한없이 치솟고, 각종 범죄율은 나날히 늘어만 가고, 언론탄압, 인권유린, 심지어 사회정의의 위해 싸우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처형까지 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간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것이나 먹는 것도 변했고, 그 사람들이 사는 주택은 호화판 주택으로 변했건만 인간성 본질은 아직도 변치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악의 세력이 더 강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가닭으로 오늘날도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 부패한 세상안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언자 아모스도 사회정의를 부르짖다가 여러가지로 핍박을 당했고, 이사야 예언자도 당시의 음란과 사치와 불의한 관헌들을 향해서 담대히 그 죄를 책망하고 꾸우치라고 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것입니다. 오히려 이와같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아무 핍박없이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무죄하신 예수님도 두 죄인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상스럽게 생각할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도 이 현세에서 되는 보통현상의 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패한 세상에서는 이와같이 의로운 이와 불의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언자와 추악한 죄인이 같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와 살인강도가 같이 감옥에서 썩는것도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의로워서 이 핍박을 받고, 다른 한사람은 너무 악해서 이 형벌을 받는것이 현세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와같이 살고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 받을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스스로 내다보시면서, 우리가 장차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계속하신 말씀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산 문물동 본향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 **입당송** 당신의 성전에서, 하느님이여* 당신의 자비를 생각하나이다. 당신의 이름처럼 하느님이여 당신의 찬송이 땅 끝까지 미치고 당신의 오른손은 정의가 가득하시도다.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말라키아 3:1-4)

너희가 찾고 있는 주님이 당신 성전을 찾아오시리라. □ **증계송** 영광의 임금이 누구이신고? 그분은 바로 야훼님이시다.

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이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이 들시러 하시나이다. ◎

□ 제 2독서 (히브리 2:14-18 성서 P. 498)

그분은 모든 점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교 백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 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나이다. 알렐루야.

□ **복음** (루가 2:22-40 성서 p. 127)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 신자들의 기도

1. 화해의 성년을 맞아 주께 비오니 우리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우리의 모두를 주께 봉헌 하도록 은총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부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당신께 비오니 그들에게 인내와 용기를 오롯이 주께 드려 만민에게 좋은 표양을 보여 주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뒤를 따라 사회 정의를 위한 투사가 되도록 비추어 주소서 ◎

3. 부활의 희망속에 세상을 떠난 우리 형제들에게 주에 속은 은총으로 영원한 만사를 누리게 하소서 ◎

+ 모든이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느님, 당신 백성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어 세상을 주의 섭리대로 평화롭게 다스리시고, 또한 성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주를 섬기며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미나이다. ◎ 아멘.

(3) 성찬의 전례

□ 봉헌 □ 성찬식

□ **영성체송**,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으며 만민에게 내리신 그 구원을 보았나이다.

* 순정이 산책 *



* 정의구현 사제단이 *

□편 지□



정든 공소를 떠나오면서

이 상 태(아릭스)

존경하옵 신부님!

일간 성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신부님을 뵈옵 못 도와드리고 떠나온 불초는 아쉬운 심정을 순정이를 통해서 신부님께 문안 드립니다.

신부님 본당은 달라졌지만 기도로써는 항상 천주님께 연결되어 있었읍니다. 신부님! 기도중에 이 불쌍한 영혼을 잊지 하옵소서.

우리들은 깊은 밤을 달게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시선은 새로운 신문기사나, 인사이동 등등에 신경이 집중됩니다. 더우기 교회소식이 눈에 띄이면 그저 그에 정신이 옮겨져 애달픈 기사라면 다시 읽으면서 홀로 흐느끼기도 하는 때가 없지도 않읍니다.

저는 이번 제가 있던 인월공소를 떠나올 때, 저의 심정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교우들과 헤어지는 저의 심정은 천주님이나 아시지.....견잡할 수 없는 심정이었읍니다.

이 사회에서 어느 직장이든지 들고 나서는데, 한사람이 자리를 물러나면 후임이 바로 들어앉는 것이 그 자리를 질서 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온데, 떠나자니 후임도 없고, 떠나는 이도 바로 갈 곳조차 막연한 신세일진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교회당국에서 성직자 양성을 위해 온갖 정력을 쏟듯이 한걸음 더 나아가 공소회장 양성에도 협력 보조해 주시면 이런 안타까운 공소회장의 심정을 위안시킬 뿐만 아니라 공소도 안정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읍니다.

이번에 제가 체험한 일입니다. 부득이 떠나야할 저를 불붙고 울면서 "나 죽은 후나 떠나세요. 우리 공소 교우들은 어찌하라고 왜 어디로 가시렵니까? 제발 이 이삿짐 다시 풀러 노세요 하며 특별히 애원하며 눈물 바라는 노인비들을 주교님, 본당 신부님 직접 보시지 아니 하셨으니 믿어지지 않으실런지 모르시겠지요마는 참으로 그런 석별을 두번 겪을까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성직자도 아닌, 저는 이삿날 발길을 돌릴 때 저를 불붙고 몸부림치는 교우들이나 저의 정 메는 장면! 무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사가 결정된 이상 주위의 교우들의 만류에도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니 "아이고 무자비도 하시네"

"우리는 어쩔대어!" 하는 걸 보고서 저는 겨우 달래는 말로 "여러 교형 자매들 천주님 안배가 있을것ियो, 또는 본당 신부님의 배려로 새 회장님이 바로 뒤를 이을 것이고, 또 벌써 '열다섯살' 된 여러분들이 아니요! 부디 수계법절 잘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떠나온 저의 심정!

(전 인월 공소회장)

□나의제언□



성가에 대한 제언(提言)

노 동 길(모이세)

근래 미사전례가 수시 바뀌고 성가개창 운동이 활발한 현 교회에서 성가대가 과연 어떻게 육성되어야 하며, 미사에 성가가 알맞게 대처할 겹에 제언한다.

성가를 정의하면, 인간의 창작이기 전에 천상적 원형으로 천상에서도 불려졌다는 성서적 표현에서 장엄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천주님과 대화라는 겹에서 다른 음악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성경과 교리의 요약이요, 기구의 최상급이므로 성가를 통하여 신의 세계로 초월되어 영원하고 거룩한 영역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가는 미사를 돕고 장식하는 감상적 리듬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름다운 미사의 예술적 표현으로서 음악적 제사인 것이다. 이런 겹에 붙어

첫째 성가대는 사도직이며 지휘자와 반주자는 고린토 전서 9:13장 말씀의 적당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신심에만 기대하기 보다 유능한 음악인을 교회는 확보할 수 있고 책임을 따질 수도 있으며 개창운동도 원 활히 전개할 수 있다.

둘째 성가대가 제대옆에 위치해서 우렁찬 선창을 하며 지휘자가 회중앞에 나와 지휘하므로써 소극적인 개창은 달라질 것이며 성가의 생활화를 도모하게 된다.

셋째 성가대의 특별순서가 미사전례에 포함되어 못 악성들의 심혼이 깃들인 최선 최량의 성가를 거룩되고 참된 예물로 천주님 재단에 바쳐 교우의 신심에 기여하며 성가대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넷째 작본당에서 실력있는 대원을 발탁 구성하여 종교 음악제를 교구행사로 지방순회 공연하므로써 사회인으로 하여금 가톨릭의 바른 인식의 터전을 마련하여 전교하고 본당간의 유대강화 및 철속 대원들의 사명의식이 고취된다.

다섯째 지휘자, 반주자 교육실시로 신앙과 음악적 실력을 결하도록 하여 평신도 사도직의 최 선봉자로서 자질을 갖추어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모든 교우는 성가를 미사의 악세사리처럼 여기거나 성가대는 운영비가 든다는 이유로 개창에만 힘쓴다거나 천주께 대한 최고의 기구를 애써 부르는 대원을 짧은 층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은혜의 관심보다 감시에만 눈을 두지 말고 성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고조되어 교회발전 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성가대는 교세의 척도가 될수 있다. 성가대가 잘 운영되는 본당은 제분야에 있어서도 융성하다. 음악은 정열과도 상통한다. 참으로 붉은 피가 용솟음치는 청년들에게 굳은 결속과 정의실천을 위하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신심단련의 도장이 성가대에서 부터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리 창인동 천주교회)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칠·도장 청부
대 동
지물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25986)

*** 교형여러분의**
부 활 상 회
 교형들에게 열가판매 *
 남학생...교복(에리트지) 및 모자일절
 남자대인...가죽잡바, 의류일체
 여자대인...천질라코트,
 히말라야 코트
 ● 전주시 전동, 매곡교사거리
 주 원 배(실베들)아텔

◎ 교형 여러분의 집 ◎
현대 사진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26289

□ 현실에 도전하는 성서 □



세 상 의 빛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경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대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오.」

(마태오 5:14-16)

지 학 순 주교
(천주교 원주 교구장)

종교는 원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에게서 악을 제거하고 행복되게 해주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물론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이것이 말세론적 의미에서 그 완성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세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교회는 늘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근년에 와서 사회주의, 인간의 기본 권리, 인간의 생존권, 인류 공동의 유대 관계 등 사회 문제를 직접 취급하고 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을 인류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자기의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에 침투해야 하며, 위정자들은 교회의 이 올바른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이라든가 그를 전후해서 나온 교황들의 모든 교서는 다 이러한 내용들이다. 71년에도 로마 교황청에서는 세계 주교 대표자 회의를 열고 「사회정의」문제를 토의하였다.

이런 모든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글들을 읽어 볼 때에 나는 나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무서운 힘을 깊이 느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부정 부패가 만연하여, 사회 정의의 구현이 요구되고 있는데 방에 들어 앉아 기도만 드리고 있으면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 오늘 교회가 부르짖는 것 같은 정의가 충만한 세상이 될까. 내가 만일 진실로 교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주교라면 교회가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이 소리를 듣고만 앉아 있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늘 이런 충격을 느끼며 언젠가는 힘차게 일어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교회가 명하는 지상 과제를 수행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원주 투쟁기에서— 현실에 도전하는 성서 p. 146-149)

요심이 (80) 김병오



□ 신간안내 □

- “하루 한순간을”
홍윤숙지음 (1,200원)
- “마더 데레사”
앨범 마그렛츠 (400원)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 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 6544

* 교향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나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 6094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금 님 찾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전화 ㉠ 5013
김원준(야고버)

* 현대 광고사 *

(광고물 제작 실크인쇄)
* 현대 DP 사
(칼라 사진, 카메라 수리)
송홍섭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베거리 중간
전화 ㉠ 9431

◎ 타자기 수리 전문 ◎

전주 **뉴 타자 학원**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충동 605-1
원장 신승무(나오로)
전화 ㉠ 6664

☆ 교우들의 집 ☆

영명 T·V 수리센터
■ 텔레비전, 전축, 라디오
중고품 매매, 판매, 수리
■ 출장비 무료
유원상(몬보스코)
전주 동부시장동 (전화 ㉠ 913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9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 2월 2일 오후 2시-4일, 가톨릭 센터
회비 : 2,500원 (사진대 포함)
2. 레지오 마리에 간부회의 : 2월 15-16일 가톨릭 센터
3. 레지오 마리에 연수회 : 2월 22-23일 가톨릭 센터
4. 전주교구 분당 중·고등학교 교리 경시 대회 : 2월 23일, 각 분당에서
5. 제8차 꾸르실로 : 2월 25일~28일, 가톨릭 센터

(중암)

전화 ②2651 신부 이대권
②3874 보라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김영진

1. 신임 보좌 신부 환영식 :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3. 점포 관리 위원회 회의 : 사도회 월례회 후
4. 성신반부녀회 월례회 : 2월 7일
5. 교리 개강 : 오늘부터
6. 특별 헌금 30,000원 헌금하신 진 옥주(미신자) 할머니께 감사 드리며, 그분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성미에 정성을 다 합시다
◎구라 주일 헌금 : 10,330
지난주 성미 : 2달 2되 누계 : 353.2되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월례회 : 저녁 미사후
2. 중·고학생들 미 등록자 속히 등록 바람
3. 2월 4일 : 1반 반회, 2월 5일 : 4반 반회
4. 신용 조합 이사장 : 강 남준, 부회장 : 김 중태씨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이렴재

1. 사도회 월례회 : 저녁 미사후 8시
2. 유아세례 : 공식 미사후
3. 미사시간 변경 : 2월 3일부터 (하루 한대)
<아침 미사> : 월, 화, 목, 금, <저녁> 수, 토<토>
오후 4시는 학생미사
4. 특별 헌금 : 마 유리아(전별 재대) 30,000원
서 크리스티나 10,000원
5. 학생회 쉼 대학 성경 퀴즈 대회 : 2월 9일 10시 미사
후 성실유치원에서 교리서 1과 18과 무가 복음(C해)
6. 가정 방문 : 아동 교리 교사(2월 5일부터)
7. 국민학교 1년 신입생 모집(사진포함)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정 루까(반성) 교통 1가 겨주 (운수사업)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1.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 공식 미사후
2. 신용 조합 월례회 : 다음주일
3. 미 교무금 신입자 신임 바람.
4. 노송 신용 조합(이사장) 이 홍재
(부 이사장 김정생 (이사) 김성록, 전진남, 이대환
(감사) 장 성복, 박 성규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합니다.
남노전 순자 : 1,000원 저금 관리구 셋별 브레시디
음 : 5,250원 주계 6,250원 누계 1,910,702원
◎구라 주일 헌금 3,900원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그리스도 공동체 목사회 : 2월 2-4일
각 회장, 부회장, 구역장, 필히 참석 요망.
2. 젊은이의 모임 : 일요일 저녁 미사후로 옮김
3. 부녀부 월례회 : 공식 미사후 뜻있는 분 가임 바람.
4. 신용 조합 임원회의 : 2월 5일
5. 신용 조합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구라 주일 헌금 : 5,865원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신 창 계 안인 정 배 음	사도회 임시 총회 성모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새 분당 신부님 취임		14,145원	제 3 지구	창 인 동 황 동	사도회 월례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42,787원
				2,080원					50,028원
제 2 지구	대 윤 월 중 울 동 동	중·고생 특별·교리 사도회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2,570원	제 4 지구	중 앙 동 노 송 동 덕 진 자 동 서 학 동 동 전 동	신임 보좌 신부님 환영식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9,015원
				35,275원					17,020원
				21,576원					18,165원
				12,885원				47,657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주 산 산 산 산 산 산 현 동	새 구역 회장님께 축하 드립니다 사도회 월례회 공소 회장단 회합 사도회		5,820원	제 5 지구	원 주 계 남 부 장 진 준 진 준 산 창	학생회 월례회 신용 조합 정기 총회		11,030원
				11,330원					3,535원
				5,200원					
				6,461원					